

산젠 나가야

이 공동 주택(나가야)은 무라게(현장 감독)와 사무원이 거주하던 집으로 세 개의 거주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에는 온가족이 거주했는데, 공동 주택의 모든 주민들은 마을에 2 개 있던 공동의 목욕탕을 이용했습니다. 대절해서 이용할 수 있는 탕은 부지배인과 가족, 그리고 무라게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주거 비용은 유지비를 포함하여 스가야 제철소의 소유자인 다나베 가문이 부담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제공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이 지역의 다른 제철소로 옮겨가지 않고 마을에서 머물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사무원을 통솔하여 제철소의 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무라게는 철강 생산에 관한 모든 기술적인 측면을 책임졌습니다. 무라게는 다카도노(제철로가 있는 작업장)의 지하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번 조업에 들어가기 전에 점토제 용광로를 제작했으며, 사철과 목탄의 양을 얼마큼, 언제 추가할 것인지 결정하는 고도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대부분은 기업 비밀로서 정해진 사람에게만 공유되었습니다. 다나베 가문이 제련을 진두지휘하는 숙련된 무라게를 확보하고 정착하게끔 공을 들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